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하림 익산공장에서 열린 식품산업 활성화 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후 생산 공정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범”

문 대통령, 익산 찾아 하림 그룹의 지역 투자 계획 격려·가공 공장 시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축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하림 익산공장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익산에 위치한 (주)하림 본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하림그룹 관계자로부터 하림의 전북지역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주)하림은 전북도민들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향토기업으로서 농식품산업을 지역발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 지역에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Harim Food Triangle)”이라는 이름의 투자계획은 전북 익산지역 직선거리 12km 이내에 도계가공시설, 종합식품단지, 최첨단 육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농식품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하림을 찾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림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4개 중 유일하게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지난달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의 대기업과 달리, 하림은 인구 30만이 안 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오히려 지역 소도시에 있는 본사를 확장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범이 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식품산업은 간편가공식품(HMR), 펫푸드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가공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식품산업 혁신의 과정에서 ‘사료-축산-가공-제조-유통’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하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하림도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처럼 늘 기술개발에 힘을 쏟으며 혁신하려

는 이들의 땀과 도전이 있었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의 노력과 함께, 가족질병 예방, 깨끗한 축산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식품산업, 더 나가 대한민국 경제가 이곳, 익산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림 투자 계획 보고가 끝난 후 닭고기 가공공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식품가공 공장을 시찰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힘써 준 직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취임 이후 처음 식품산업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방역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추석기간 중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27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도와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반 2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제수

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175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제사음식, 조기, 명태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김진성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볼거리 즐길 거리 ‘풍성’

1일 답사·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시해설·영화상영·문화공연 등 다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분수령인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올 하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 ‘다시 피는 녹두꽃’은 올 3년차를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프로그램

이 상반기 성황리에 마감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일 답사·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접수 중에 있으며 정읍 전봉준 유적과 정읍 황토현 유적(각 사적 제293호, 제295호), 만석포터(전북도기념물 제33호)를 중심으로 하는 답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속한 토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 운영된다.

전시해설과 영화상영,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공연은 ‘8월 31일-택전 비보이’, ‘9월 28일-내 친구, 유관순’, ‘11월 2일-코미디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상의 제한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한편, 관람객의 편안한 컴퓨터자 도서관내 기념관내 ‘녹두학당’에는 다양한 도서와 편의시설 등이 추가 비치되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및 안내 등의 문의 사항은 기념관운영부(063-536-1894)로 전화하면 된다. /창은성 기자

전북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전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위해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운행단속시스템(1단계)을 구축하고 22일 모의단속 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이 빠르면 올 연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단속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번 모의 단속훈련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위해 단속 전담인 오세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를 모의발령하고, 당일인 22일까지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

차의 운행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지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및 제외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등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단계) 운영·관리 사항 및 도시군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연계구축 가능 일 등 단속시스템 구축사항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화사업 관리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본격적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함은 물론, 문제점 개선과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

번 단속은 실제 단속이 아닌 훈련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는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히며,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자동차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태 도 환경복지국장은 “도시군-한국의환경공단과 연계되는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통합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적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이제 걱정마세요”

도, 풍수해보험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20일 순창군읍사무소에서 79개 읍·면·동이장 및 풍수해보험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풍수해보험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예기치 못한 대설·강풍·풍랑·지진·호우 등으로 주택이나 손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풍수해보험사업 판매자 풍수해보험

담당자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업무일선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진행은 2019년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사업 설명, 보험 상품 세부사항 소개, 재난피해시 보험금 지급 사례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방안을 시·군별로 발표하는 등 업무추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주민

에게 지원함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5개 풍수해보험보험 사업자(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가입시(주택 및 세입자 동산)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질 좋은 정책보험 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과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